

재단후의 자산기증들의 힘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시작되면서 온갖의 공헌을 받으며 창설자인 켈로그(Kellogg) 회사가 있는 미국 미시간주의 배틀 크릭(Battle Creek)의 지역(리저번)을 방문한 것은 지난 10월 26일이다.

이 재단이 제공하는 1999-2000 연례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 재단후의 자산 다양한 기증들이 표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개인 또는 집단에서 이 재단 고인의 뜻을 이기기 위해 고인의 영의 등으로 된 800여개의 기증이 이 재단후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장학기증, 지역(리저번)에 기증, 북미에 기증, 종교단체 기증, 학교 기증, 의료 기증, 소외계층 기증 등으로 기증의 해령 범위는 넓었다.

대략 5000불(한화 600만원) 이상 기부한 개인이나 단체에 관하여는 경우 2등급으로 제2 2류의 유언장 사약을 지우려는 기증으로 만들 수 있다. 1호사이의 2등급 기증수만 64개이며 한도한에 한계는 12개와 기증이 많을수록 보편적 2등급(한화)의 나열이 많기 중 집중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는 배틀 크릭에 한해 리저번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기부물건을 가능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유족들에게 수여하는 장학금, 의료금이 의료비, 복귀 해령 등도 이러한 기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의 재단에는 기부자의 명의로 제2 기부자가 지칭하는 의미를 지우려는 24명 기증수령을 권장하고 있다. 목적이 이반 경우 정립적으로 기증을 키워나갈 수도 있다. 개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듯이 노후생활을 위한 노후의 직책을 위해 정립하는 것이다. 이 정립은 행정적인 기증으로 후세에게 전승된다. 한국의 재단후에 유언 기증들이 성립되는 때를 기다려 보라.

재단속의 작은 기금들의 힘

박영숙 한국여성기금 이사장

우리의 조반문화가 서구화되면서 알게 된 콘푸레이크 창시사인 켈록(Kellogg)회사가 있는 미국 미쉬간주의 배틀 크릭(Battle Creek)의 지역사회재단을 방문한 것은 지난 10월 26일이었다.

이 재단이 제공한 1999-2000 연차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이 재단속의 작은 다양한 기금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이었다. 개인 또는 집단명의로 아니면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 고인의 명의 등으로 된 800 여개의 기금이 이 재단안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장학기금, 지역사회 발전기금, 문화사업기금, 복지사업기금, 종교단체기금, 학교기금, 의료기금, 소지역기금 등으로 기금의 종류는形形色색이었다.

미화 5,000불(한화 600만원)이상 기부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원하는 경우 그들 명의로,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만들 수 있다. 1년 사이에 새롭게 늘어난 기금수만도 64개이며 같은 달에 많게는 12개의 기금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서 그 고장사람들의 나눔의 열기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예는 배틀크릭에서만 일이 아니어서 미국 전체의 기부문화를 가늠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유학생들에게 수여되는 장학금, 교포들의 의료 및 복지 혜택 등도 이러한 기금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여성재단에도 기부자의 명의로 그리고 기부자가 지정한 사업을 지원하는 개별기금 설정을 권장하고 있다. 목돈이 아닌 경우 적립식으로 기금을 키워나갈 수도 있다. 개개인이 노후를 준비하듯이 평등한 사회건설을 위한 나눔의 실천을 위해 적금하는 것이다. 이 적금은 항구적인 기금으로 후세에게 전승된다. 한국여성재단속에 많은 기금들이 설정되는 때를 기다리며 2001년을 맞이 한다.